

청정채소보급소

■
■
■
특별취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 전국에서 오직 하나 뿐이라는
남대문 시장내 「세일상사」를 찾아

청와대 특별지시로 개설

남대문극장에서 남대문시장 안으로 약 150미터쯤 걸어 들어가서 오른쪽을 보던 이색적인 채소가게가 눈에 뜨인다. 이름지어 「청정채소 보급소 세일상사(世一商事)」. 이 집이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기생충 알이 안물은 채소만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다.

이 가게에 들어서면 우선 질서있게 진열된 상품과 그 분위기가 어딘지 청결감을 준다. 바닥에는 타일을 깔아서 문화주택의 부엌처럼 깨끗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 실내의 공기가 맑다. 내부에는 냉동창고가 있어, 채소의 신선도를 보존하고 있다.

얼핏 느끼기에 외국의 어떤 채소가게를 들어 온 기분이다.

청정채소보급소는 1967년 청와대 특별지시로 개설을 보게 되었다.

기생충협회 감독아래 운영

우리나라의 채소 재배는 인분(人糞)을 비료로 쓰고 있다. 때문에 채소를 통해서 기생충이 감염된다. 채소를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노릇. 기생충의 감염을 두려워 하고 스스로 예방하려고 해도, 채소를 먹는 한 도리가 없다. 그래서 식자(識者)들간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처럼 기생충란이 묻지 않는 깨끗한 채소를 먹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소망되어 왔다. 그 꿈은 실현되었다.

청정채소보급소의 출현이 그것이다. 청정채소보급소는 기생충박멸협회의 감독하에 운영된다.

우선 이곳서는 인분을 비료로 사용

깨끗하게 진열된 청정채소를. 일반시민들은 값도 알아보기 전에 비싸다고 생각하고 의연하지만 실제로는 값은 거의 비슷하다. 밖에 인분개소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한 채소는 판매하지 않는다. 화학비료로 재배한 채소만을 판매하고 있다.

인분사용 금지지역에서 재배

인분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55 개소가 당국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다. 즉 1969년 보건사회부장관령으로 시정소재지, UN군 주둔지역, 관광지역등 55개 지역이 인분사용 금지구역으로 되었고, 인분대신 화학비료를 사용하며 여기서 재배된 채소라야 청정채소 보급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정채소는 주로 미군부대에 납품이 되고 있다. 미군부대에서는 청정채소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정채소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어, 스칸디나비아클럽과 몇 군데의 관광호텔 정도가 이 청정채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공무원등 지식층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청정채소를 사용하고 있다. 세일상사를 단골로 이용하는 고객도 모두 이런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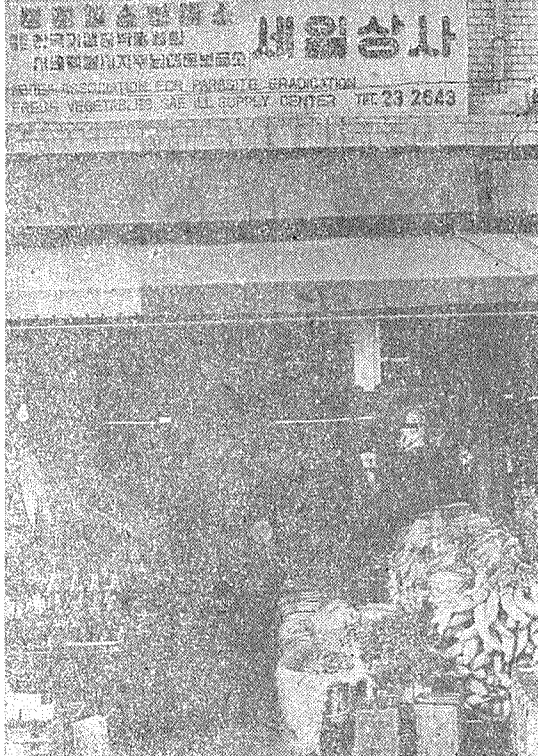
시민들은 비쌀가봐 겁부터 먹고

청정채소보급소라는 이색적인 간판을 걸어 놓으니, 일반시민들은 혹시나 비싸지 않을까 겁부터 먹는다. 그러나 별표에 나타나 있듯이 실제로는 비싼 것이 아니다. 어떤 품목은 다소 가격차이가 느껴지나 그것은 약간 액수다.

한번 이 보급소엘 들러 채소를 구해본 주부는 계속 단골이 된다. 어떤 주부는 먼곳에서 일부러 차를 타고 와서 쇼핑해가는 수도 있다.

문제는 일반시민의 인식부족이다.

청정채소 보급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전국에 단 하나뿐인 청정채소보급소 세일상사의 앞면. 각판에 영문표기가 있는 것이 이색적. 외국인들은 모두 여기에서 판매되는 청정채소를 구입해 간다.

기생충 무서운 줄 모르는 무지(無知)와 싹것만 찾을려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청정채소보급소 앞을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상추와 당근 이곳에서 팔고 있는것은 ① 연채류(軟菜類) ② 근채류(根菜類) ③ 과채류(菓菜類) 3종이다.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연채류로서 지난 10월 한달동안 3,750kg 나 팔았다. 그 다음은 과채류(2,800kg), 근

채류(1,500kg)의 순서. 품목별로는 연성추, 당근이 1,500kg로 가장 많이 팔렸고, 그 다음은 도마도(1,400kg), 카베츠(900kg), 셀로리(800kg)가 비교적 잘 팔리는 품종이다.

기생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줄었다. 세일상사 대표 윤 기홍(尹基洪)씨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일반시민이 청정채소를 배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관광객이 줄어들음에 따라 관광업으로부터의 매출이 줄었기 때문인듯 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계몽선전 업무도 전개하면서

보급소에서 청정채소의 판매업무 이외에도 각종 식품접객업소(食品接客業所)와 호텔, 여관, 병원, 그밖에 집

가 격 표

양 상 추	1근	80원
세 로 리	1근	100원
엽 상 추	"	50원
도 마 도	"	80원
오 이	1개	40원
호 박	"	60~80원
당 근	1근	50원
양 배 추	"	25원
페 디 시	1단	15원

특별취재

단급식소(集團給食所)에 대해서 청정 채소를 사용토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권유하고, 계몽선전 하는 것도 중요 업무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청정채소를 사용하는 업소는 일반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시키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의 재배방법 감독을 위해 재배지역 토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은 지정재배지역 생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확인절차 없이 인정해주고 있다 한다.

기혈서 매달 한번씩 체크

기생충 박멸협회(서울지부)서도 한 달에 두번 현장에 직접 출장, 채소의 관리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원래 청정채소보급소는 서울에 2개소가 설치되었으나, 증립동에 있었던 보급소는 관리사항 불량으로 취소되고, 지금은 전국에서 오직 한곳, 남대문시장의 새일상사만이 남아 있다.

비싸다는 생각 버려주길

▷尹基洪씨(새일상사 대표)말=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반시민이 청정채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며, 품목에 따라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닙니다. 실사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자기 몸을 아낄줄 아는 사람이라면 청정채소를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대로 많은 단골을 확보하

인분사용 금지지역 지정

시 도	금 지 지 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역 (단 서대문구 수색동, 성북구 상계동, 영등포구 사당동, 동대문구 면목동, 성동구, 거여동은 제외)
부산시	부산시 전역 (단 부산진구 공장동, 동원동, 서구 구평동, 동래구 녹동, 신성동 제외)
경기도	수원시, 인천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군 안양읍, 고양군 신도면, 원당면, 벽제면, 청평유원지 주위 1km 이내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단양팔경, 속리산지역, 수안보온천주위 각각 1km 이내
충남	대전시, 천안시, 유성호델 주위 1km 이내, 아산군 온양읍, 논산군 논산읍, 연무읍, 부여군 부여읍, 대천 해수욕장 1km 이내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김제군 김계읍, 백구면, 내장산 주위 주위 1km 이내
전남	광주시,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광산군 송정읍, 백양사 주위 1km 이내
경북	대구시, 경주시, 포항시, 철곡군 왜관읍,
경남	마산시, 경부고속도로 양쪽 각 500m 이내, 진주시, 충무시, 울산시, 김해군 내천면, 해인사 주위 1km 이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읍
특수지역	경인고속도로 양쪽 각 500m 이내
계	28 시, 특수지역 2, 10읍, 기타 관광지 10, 5면
총계	55 개지역

고 있어 사업상의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정채소 보급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